

[2019년 국가직 7급 국어 영역별 출제 현황]

대단원	소단원	문항 수
문 법	음운론	1
	형태론	2
	문장론	2
	어문 규정	2
	소 계	7
어 휘	한자 성어	1
	한자어	1
	소 계	2
비문학	사실적 독해	5
	추론적 독해	1
	독서 화법 작문	2
	소 계	8
문 학	현대 문학	3
	소 계	3
합 계		20

문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 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에서의 ‘-세요’, ‘-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이 문장에 쓰인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신다.”처럼 표현할 때 쓴다. 따라서 ‘당신’이 ‘자기’의 높임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문장에서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경우로, 바르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말씀’을 ‘말’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언제라도 저희 학교에 들러 주십시오./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처럼 표현할 때 쓴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 고쳐 써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가 경양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스스로 낮추어 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민족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이르는 말.”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리켜 이를 때에는 ‘우리나라’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그건 만 원이세요”나 “품절이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 아니라, 주체 높임법 중 간접 높임의 범위를 사물에까지 확대하여 발생한 간접 높임의 오류가 나타난 문장이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가격은 만 원입니다/품절입니다’처럼 고쳐 써야 바른 문장이 된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32쪽 높임 표현: 말씀, 당신, 우리나라, 간접높임

[더 알아보기 1] 대명사 ‘당신’의 용법

1.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오?
2.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3.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4.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 당신이 원데 참견이야.
5.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더 알아보기 2] 높임법의 종류

1. 주체 높임법

(1) 직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술의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용언의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으)시 -’를 사용하거나, 주격 조사 ‘께서’와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주어 명사에 접미사 ‘- 님’이 덧붙여 실현되기도 한다.

(2) 간접 높임: 높임 대상인 주체와 관련된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친분 관계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선어말 어미 ‘- (으)시 -’를 통해 실현된다.

2. 객체 높임법: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특수한 어휘의 사용(뵙다, 드리다, 여쭙다 / 여쭙다), 조사 ‘에게’ 대신 ‘께’의 사용 등으로 실현된다.

3.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나타난다.

문 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②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③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④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접사에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고, 어근에 부차적 의미만 덧붙이는 기능을 하는 한정적 접사와, 접사가 교착되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지배적 접사가 있다. ‘정답게’에 쓰인 접사 ‘-답다’는 일부 명사나 명사구 뒤에 붙어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든다. ㉠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 ‘지배적 접사’가 붙은 파생어를 의미하므로 명사 어근 ‘정’에 지배적 접사 ‘-답다’가 붙어 품사가 형용사로 바뀐 ‘정답게’는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기’는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로 쓰이거나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데, 이는 환경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주어가 있거나,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있으면 용언의 명사형이고, 이상의 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면 파생 명사이다. 또 ‘어떻게’를 넣어 보아서 부사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우면 용언의 명사형이고, ‘어떤’을 넣어 보아서 관형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우면 파생 명사이다. ‘보기’는 ‘황금을 보다’와 같이 서술성이 있고, ‘어떻게’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크기’는 ‘옥수수 알이 크다’와 같이 서술성이 있고 ‘어떻게’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사 ‘크다’의 어간 ‘크-’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낚시질’에 쓰인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한정적 접사이다. 접사가 결합되었지만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71쪽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형성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87쪽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 명사의 구별

[더 알아보기 1]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형성

파생 명사	명사(어근)+ <u>한정적 접사</u>	낚시질, 선생님,
	다른 품사(어근)+ <u>지배적 접사</u>	슬픔(슬프+ㅁ), 쓰기
파생 동사	동사(어근)+ <u>한정적 접사</u>	놓치다, 깨뜨리다
	다른 품사(어근)+ <u>지배적 접사</u>	공부하다, 출렁거리다
파생 형용사	형용사(어근)+ <u>한정적 접사</u>	늪다랗다
	명사(어근)+ <u>지배적 접사</u>	정답다, 슬기롭다
	관형사(어근)+ <u>지배적 접사</u>	새롭다
	부사(어근)+ <u>지배적 접사</u>	차근차근하다
파생 부사	형용사(어근)+ <u>지배적 접사</u>	많이, 조용히
	명사(어근)+ <u>지배적 접사</u>	여름내, 마침내

파생 관형사	명사+ <u>지배적</u> 접사	물질적, 문화적
	대명사+ <u>지배적</u> 접사	이까짓, 그까짓

[더 알아보기 2]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 명사의 구별
주어가 있거나,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있으면 용언의 명사형이고, 이상의 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면 파생 명사이다. 또 '어떻게'를 넣어 보아서 부사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우면 용언의 명사형이고, '어떤'을 넣어 보아서 관형어의 수식이 자연스러우면 파생 명사이다.

- 꿈을 마음대로 꾸기란 어렵다.

파생 명사 명사형(⇒ 품사는 '동사')

- 그림을 멋지게 그리기란 쉽지 않다.

파생 명사 명사형(⇒ 품사는 '동사')

- 걸음을 빨리 걸음.

파생 명사 명사형(⇒ 품사는 '동사')

- 얼음이 단단하게 얼.

파생 명사 명사형(⇒ 품사는 '동사')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
에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
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
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
하기를 즐긴다.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
에 플래그스태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 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
고 있다는 듯이 끄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인데.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
지? 영양실조에다 안짱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
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
색이 만면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인데.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
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첫 번째 문단에서 나바호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은 개념이며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는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 문단에서 말[馬]을 예로 들어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은 실감하지만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미래의 투자 가치'에 대해 진술한 ③이 적절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바호인이 '지난 독립기념일'은 '기억'하지만 '다음 가을'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라는 표현이 현실감을 주지 못한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따라서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는 진술은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② 나바호인의 사고에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나바호인이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긴다는 진술은 나와 있지만 이것이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이며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는 추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다섯 번째 문장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화의 기능’이 핵심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질문, 질책, 제안, 요청, 명령’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을 뿐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문장에서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고 했으므로, 발화의 의미를 해석할 때 ‘상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자 텍스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78쪽 발화의 개념, 기능, 행위

[더 알아보기] 발화의 개념, 기능, 행위
1. 발화의 개념
일정한 상황 속에서 단어나 문장이 음성이나 문자로 실현된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발화의 연속체가 하나의 담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담화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2. 발화의 기능
발화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에는 질문, 질책, 제안, 요청, 명령, 약속, 설득,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이 있다.
3. 발화 행위
어떤 말이 직접 발화 의미를 나타내는지, 간접 발화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장면(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1) 직접 발화: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며, 상황보다 의도가 우선 고려된다. 예) 창문 좀 열어 줘.
(2) 간접 발화: 상대방을 배려하여 전달 의도의 강도를 약화시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하며, 의도를 상황에 맞춰 표현한다. 예) (창문을 열어 달라는 의도로) 정말 덥다.

문 5. ㉠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음화는 장애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	㉣
① 잡고	담고	갈 곳	하늘소
② 받고	앉더라	발전	물동이
③ 놓습니다	삶더라	열 군데	절정
④ 먹고	껴안더라	어찌할 바	결석

[정답] ④
[정답 풀이]
경음화 유형의 조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④ ‘먹고, 껴안더라, 어찌할 바, 결석’이다.

• ㉠ [표준발음법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ㄸ, ㅌ, ㄴ), ㄴ(ㄴ, ㄹ, ㄷ, ㄹ,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이 조항은 ‘ㄱ, ㄷ, ㅌ’과 같이 종성으로 발음되는 파열음 뒤에서의 경음화를 규정하고 있다. ‘ㄱ,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물론이고 ‘ㄱ, ㄷ, ㅌ, ㄴ’, ‘ㄷ, ㄹ, ㄷ, ㄹ, ㄴ’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ㄱ, ㄷ, ㅌ’으로 끝나지 않아도 종성에서 대표음 [ㄱ, ㄷ, ㅌ]으로 발음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경음화가 적용된다. ① 잡고[잡꼬](○), ② 받고[받꼬](○), ④ 먹고[먹꼬](○)는 ㉠의 용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③ ‘놓습니다’의 경우 ‘표준발음법 제12항 2. ‘ㅎ(ㅙ, ㅞ)’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를 근거로 ‘ㅎ’과 ‘ㅅ’을 합쳐서 [ㅆ]으로 발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소’를 [다 : ㅆ]로 발음하는 것처럼 ‘놓습니다’도 [노쌔니다]로 발음한다. 따라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표준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이 조항의 경음화는 ‘용언 어간 뒤’와 ‘어미’라는 문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23항의 경음화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체언의 경우에는 ‘신도[신도], 신과[신과]’라든가 ‘바람도[바람도], 바람과[바람과]’ 등과 같이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는다. ① 담고[담 : 꼬](○), ② 앉더라[안떠라](○), ③ 삶더라[삼 : 떠라](○), ④ 껴안더라[껴안떠라](○)는 모두 용언 어간 뒤와 어미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 [표준발음법 제27항] 관형사형 ‘-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ㄴ,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이 조항은 관형사형 어미 중 ‘- (으)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더라도 ‘- (으)ㄹ’이 아닌 ‘- (으)ㄴ’이나 ‘-는’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① 갈 곳[갈곳](○), ④ 어찌할 바[어찌할바](○)는 ‘용언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 ‘- (으)ㄹ’ 뒤라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② ‘발전[발전]’은 명사이며 ③ ‘열 군데[열 : 군데]’의 ‘열’은 관형사이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표준발음법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ㄴ’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이 조항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ㅌ, ㄴ’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면 ‘ㄷ, ㅌ, ㄴ’이 [ㄸ, ㄲ, ㄴ]과 같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③ ‘절정(絶頂)’의 발음은 [절정](○)이며, ④ ‘결석(缺席)’의 발음은 [결석](○)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하늘소[하늘쏘], ② 물동이[물똥이]는 한자어가 아닌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어휘이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401쪽 표준발음법 제6장 경음화 23,24,26,27항

문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③ 늘리는(○): ‘늘리다’는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수나 분량, 시간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를 이전보다 큰 상태로 만들다/재주나 능력 따위를 나아지게 하다/살림을 넉넉하게 하다/시간이나 기간을 길게 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수업 시간’의 경우는 시간이나 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에 속하므로 ‘늘리는’을 쓴 것은 바르다. 한편, ‘늘리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고무줄을 늘이다./옛가락을 늘이다.’처럼 쓴다.

[오답 풀이]
① 가능한(x) ⇨ 가능한 한(○): ‘가능한’은 형용사 ‘가능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부사나 다른 용언을 수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능한’ 뒤에는 체언이 오는 것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는 문맥상 명사

‘한(限)’을 넣어, ‘가능한 빨리 달려야’가 아닌 ‘가능한 한 빨리 달려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한(限)’은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② 그들에(x) ⇨ 그들에게(○): 조사 ‘에’는 “나무에 물을 주다.”와 같이 무정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사 ‘에게’는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다.”와 같이 유정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어진 문장에서 ‘그들’은 유정 명사이므로 ‘에게’를 써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다.

④ 효과적이지 않는(x) ⇨ 효과적이지 않은(○): ‘않다’는 앞의 말이 뜻하는 상태나 행동을 부정할 때 쓰는 말이다. 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의 구성으로 쓰여 보조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 뒤에서 ‘-지 않다’의 구성으로 쓰여 보조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용언의 품사가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동사이면 보조 동사로 기능하는데, 보조 형용사일 경우 ‘-은’을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만 바르고, 보조 동사일 경우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면 ‘않는’으로 쓰고,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면 ‘않은’으로 쓸 수 있다. 이 문장에서 ‘효과적’의 품사는 명사이고 ‘이지’의 품사는 서술격 조사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용사처럼 활용하므로 ‘-은’을 써서 ‘효과적이지 않은’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르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447쪽 어미의 활용 / 449쪽 조사의 선택

문 7.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 시른 빈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똥대도 꺾고 치도 썩치고 브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섞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쁜디 四面이 거머어득 저뭇 天地
寂寞 가치노을 켜는디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헝리으.

- ① 孤子單身
- ② 螳螂拒轍
- ③ 磨杵作針
- ④ 百尺竿頭

[정답] ④
[정답 풀이]
임을 여인 절망적 슬픔을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가토리’는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都沙工’은 넓은 바다에서 대처할 방법도 없이 해적을 만난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한자 성어는 ‘百尺竿頭(백척간두)’가 적절하다. ‘百尺竿頭(백척간두)’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孤子單身(고힐단신):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을 이르는 말. [유]혈혈단신(子子單身)
② 螳螂拒轍(당랑거철):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당랑지부(螳螂之斧)
③ 磨杵作針(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
[현대어 풀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배가 노도 잃고, 닛도 잃고, 똥대에 매어 놓은 줄도 끊어지고, 똥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는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방은 캄캄하고 어둡게 저물어서 천지는 고요하고 사나운 파도는 이는데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 엇그제 임과 이별한 나의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으랴.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468 쪽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 [정채영 국어] 2권 어휘 277쪽(螳螂拒轍)/295쪽(磨杵作針)/284쪽(百尺竿頭)

문 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 ②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 ③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 ④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정답] ①
[정답 풀이]
• 이끄는v대로(○): ‘대로’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 문장에서 ‘대

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이'고는 '대로'로 띄어 쓴 것은 바르다. 한편, '대로'가 체언 뒤에 붙어서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 따라갈밖에(○): 'ㄹ'밖에'는 해할 자리에 쓰여, 'ㄹ'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은 바르다. 한편, '밖에'가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낼 때는 조사이므로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처럼 붙여 쓰는 것이 바르다. 이 경우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밖에'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나타낼 때, 즉 '밖에' '외(外)'의 의미를 가지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명사 '밖에'의 경우 "그녀는 기대 밖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등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 5년만(x) ⇨ 5년만(○): '만'이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5년'만처럼 '만'을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편, '만'이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처럼 '만'을 앞말에 붙여 쓴다.

• 한잔해야지(○): '간단하게 한 차례 차나 술 따위를 마시다'는 뜻의 '한잔하다'는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 것은 바르다.

③ • 할텐데(x) ⇨ 할텐데(○): '할'은 '하-(어간)+ㄹ'로 분석할 수 있고, '텐데'는 '터(의존 명사)+이-(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ㄴ'데(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할'텐데처럼 띄어 써야 한다.

• 잘돼야(○):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다' 등의 의미로 쓰는 경우의 '잘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 것은 바르다.

④ • 태권도에서만(○) ⇨ 태권도에서만(○): '만'이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의 뜻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 문장에 쓰인 '만'은 조사이고 조사는 몇 개가 이어지더라도 붙여 적으므로, '태권도에서만'과 같이 고쳐야 바르다.

• 낼거야(○): '낼'은 어간 '내-'와 어미 'ㄹ'로 분석할 수 있다. '거야'는 의존 명사 '것'의 구어적 표현인 '거'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와, 어미 '야'가 결합한 '거야'가 줄어든 구성이다.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 '이다'의 '이-'가 생략되는 바에 따라 '거야'와 같이 쓸 수 있다. 따라서 '낼'거야처럼 쓴 것은 바르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277쪽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규정

문 9.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 붓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 불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 붓다)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통통 불었다. (→ 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불다(x) ⇨ 붓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의미로 쓰이는 어휘는 '붓다'이며, "개울물이 붓다/체중이 붓다"와 같이 쓴다. '붓다'는 자음 앞에서 '붓고, 붓는'과 같이 활용하며 모음 앞에서 '불어서, 불으니'와 같이 활용한다. 한편, '불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 동풍이 부는 날", "유형, 풍조, 변화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 사무실에 영어 회화 바람이 불다", "입을 오므리고 날숨을 내어보내어, 입김을 내거나 바람을 일으키다. ㉢ 유리창에 입김을 불다". "(속되게) 숨겼던 죄나 감추었던 비밀을 사실대로 털어놓다. ㉣ 경찰에게 지은 죄를 낱낱이 불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오답 풀이]

① 붓다(○):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는 '붓다'이며, "얼굴이 붓다/병으로 간지 붓다/울어서 눈이 붓다"와 같이 쓴다. '붓다'는 자음 앞에서 '붓고, 붓는'과 같이 활용하며 모음 앞에서 '부어, 부으니'와 같이 활용한다.

③ 붓다(○): '불입금, 이자, 갚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는 '붓다'이며, "은행에 적금을 붓다/붓는 적금/부은 갚돈"과 같이 쓴다. '붓다'는 자음 앞에서 '붓고, 붓는'과 같이 활용하며 모음 앞에서 '부어, 부은'과 같이 활용한다.

④ 불다(○): '불다'가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공이 불다/북어포가 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다./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와 같이 쓴다. 손과 발의 경우,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의미로 '불다'를 쓴 것이고, '불다'는 자음 앞에서 '붓고, 붓는'과 같이 활용하며 모음 앞에서 '불어서, 불으니'와 같이 활용한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111쪽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 '붓다/붓다'

문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그대와의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② 신제품을 선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 ④ 그 발가숭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렸다가 물속에 퐁퐁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답] ①

[정답 풀이]

① 있으매(○): '있으매'는, '있다'의 어간 '있-'에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매'가 붙은 표현이다. '그대와의 추억이 있다'와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를 연결해 주고 '추억이 있다'가 '내가 행복하게 살다'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으매'를 쓴 것이다. 따라서 '있으매'는 올바른 표현이다. 한편 '있음'에는 '있다'의 어간 '있-'에 명사형 어미 '-음', 조사 '에'가 붙은 것으로, "돈이 없고 있음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와 같은 경우에 쓴다.

[오답 풀이]

② 선뵈어도(x) ⇨ 선뵈어도(○): 'ㄴ' 뒤에 '-어'가 어울려 '래'로 될 적에 준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라, '선뵈어도'로 적어야 한다. '선보이다'의 준말 '선뵈다'의 어간 '선뵈-' 뒤에 선어말 어미 '-었-'과 연결 어미 '-어도'가 결합한 '선뵈어도'가 줄면 '선뵈어도'처럼 줄어든 대로 적는다.

③ 야속터군요(x) ⇨ 야속터군요(○):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 2]에 따라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으므로 '야속하다'는 '야속다'로 적어야 한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이다.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따라서 '야속하다'의 어간 '야속하-' 뒤에 어미 '-터군' 보조사 '요'가 차례로 결합한 '야속하터군요'는 '(야)속'의 받침이 [ㄱ]이므로 '하'가 통째로 줄어 '야속터군요'처럼 적는다.

④ 쳐박히는(x) ⇨ 쳐박히는(○): '마구 쑈서 놓여지거나 폭 밀어 놓여지다'는 뜻을 가진 '쳐박히다'는 '쳐박다'의 피동사이다. '[처]박히는'의 [처]는 '마구', '많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치다[打]'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부수다'처럼 쓸 수 있지만 '쳐박다'에서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말을 '[처- + -어] + 박다'의 '쳐박다(x)'로 쓰지 않는 것이다.

★ [정채영 국어] 1권 문법 268쪽 한글 맞춤법 35항, 270쪽 한글 맞춤법 40항

문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_____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했지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가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인지요?
-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답] ④

[정답 풀이]

작가의 말 첫 부분에서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이유가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곳에는 '취재에 주력하는 이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했다고는 나와 있지만 작품을 쓸 때의 '취재 시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② 취재를 통한 작품의 '리얼리티 확보'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신작'에서 리얼

리타가 강조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③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뿐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고름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날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 ②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③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④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의 핵심 정보는 '마음과 이치'이다. 첫 부분의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배고프면~음란해진다"까지는 '백 가지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핵심 정보에서 제외한다. 마지막 부분 "본능에 따르니~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본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마음과 이치'는 귀한 것이고, '본능'은 짐승이라 말할 만한 것이므로,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사람은 "근심이 생기면 슬퍼하는" 일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는 '본능'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본능'은 다스려야 할 것이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므로, ①은 주장이 될 수 없다.
- ②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인간이 '부귀'와 '권세'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귀와 '권세'는 '본능'에 따르는 것이고, '본능'을 따르는 삶은 글쓴이의 주장이 될 수 없다.
- ④ 사람에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고 했고, '본능'은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본능'에 속한다면, '본능'은 '마음과 이치'와 상반되는 개념에 속하므로, ④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문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莊子)도 소년(少年)은 대년(大年)을 못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압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충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제시된 글에서 체험의 획득은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70대가 20대보

다는 체험의 획득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지만, 수천 년의 체험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므로, '연령'이 아닌 '독서'로 판단할 문제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글의 정보로 알 수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문단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다.
-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째 문단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다.
-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문단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을 읽으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문 14.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영접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걸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걸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보기>

- ㄱ. ㉠: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 ㄴ. ㉡: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 ㄷ. ㉢: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②

[정답 풀이]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ㄱ, ㄴ'이다.

• ㄱ: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ㄴ: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ㄷ: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라는 말은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패배하는 소시민의 비참한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300쪽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더 알아보기]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한 연작 소설이다. 주인공 권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으로 건설하게 일하던 중,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결국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전과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막 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심리는 '안동 권씨'라는 가문과 대졸 학력의 강조, 그리고 광이 나는 구두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자존심마저 아내의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설픈 강도 행각으로 무너지고, 권 씨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다. 작가는 무기력한 권 씨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문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온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 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 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는 않았어도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화포에 진하게 물들어 있다. 사실의 묘사보다 정신의 표현을 중시한 까닭에 동양 회화에서 빛과 그림자는 이처럼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렵פות 시도되는데,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회영의 「견도(犬圖)」 등 일부 화인들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①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 ②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정답] ③

[정답 풀이]

두 번째 문단에서 김홍도의 「씨름」에는 그림자가 없는데, 이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동양 회화의 경향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문단에서 조선 후기에 명암 표현이 시도되고, 김두량의 「견도(犬圖)」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를 명암법의 차이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명암법의 유무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작품이 서로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두 번째 문단 “사실성을 높이고~실재감을 높이는 것은~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를 통해 동양 회화가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두 번째 문단 “빛과 그림자를 통해~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을 통해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 ④ 첫 번째 문단의 “동양에는~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와 두 번째 문단의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를 통해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울 생각으로 시종여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여섯 번째 줄 “부녀 경대~사람마다 할 것이라.”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듯이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는 일을 사람마다 할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글이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마지막 줄에서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여 발전하도록 말과 일을 같게 하자고 하였다. ‘언행일치’는 나타나 있으나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 ③ 일곱 번째 줄에 집을 흥하게 하려면 나라를 먼저 보전하자는 진술은 나타나지만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첫 번째 줄에서 대조선국이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된 첫째이니, 조선의 자주독립을 기뻐하자고 하였을 뿐 국가의 독립성 훼손과 서구적 가치관의 범람을 우려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최동성 '애국가(愛國歌)'

1. 해제

개화 가사(開化歌辭)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시가인 가사의 형식에 갑오개혁 이후의 개화사상을 담아 노래한 시가를 뜻한다. 이 작품 또한 개화기에 발표된 가사이므로 애국적인 내용이 주가 된다. 조선은 1896년 자주독립의 의지를 표방하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하고, ‘건양(建陽)’이라는 자주적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노래는 자주 독립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며,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고, 자식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2. 현대어 풀이

대조선국이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된 첫째이니, (조선의) 자주 독립을 기뻐하세. /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제일이니, /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깃발을 높이 다세. / 나라를 도울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 하세. / 부녀자를 공경하여 접대하고 자식의 교육은 사람마다 할 것이라. / 집을 각기 흥하게 하려면 나라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를 자나 깨나 생각하세. /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지 (거기에 대한) 원망은 없네. / 국가가 태평하고 집이 편안하고 즐겁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쓰세. / 우리나라가 흥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원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 김영랑, 「독을 차고」 —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

- ①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 진 현상을 말한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이다.

[정답] ③

[정답 풀이]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이므로,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주거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바뀐 것이다.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이 자동차 도로의 확보이고, 이로 인해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바뀐 것이지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이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문단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세 번째 문단에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두 번째 문단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에서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 현상을 예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호는것가.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그 님 짜해 닛드니.
- ②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들 도다 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 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③ 내 언제 무신(無信)호야 님을 언제 속엿관디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쫓지 전혀 업다.
추풍(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호리오
- ④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ㅣ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호노라.

[정답] ①

[정답 풀이]

이 시의 3연과 4연에서 시적 화자는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지만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독을 차고 선전히 가리라”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결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 ①의 시조도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으면서 살지는 않겠다고 하여 굳은 절의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시와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뜯어 먹어야 되겠는가? /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주나라의 땅에 난 것이 아니던가?)

[오답 풀이]

- ② ‘한호’의 시조로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가 나타나 있다. <현대어 풀이> 짚으로 만든 방석을 내오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겠느냐. / 술불도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다시 떠오르고 있구나. / 아히야, 막걸리와 산나물로 족하니 없다 말고 내어 오너라.
- ③ ‘황진이’의 시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현대어 풀이>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 임을 언제 속였기에 / 달도 자는 깊은 밤에도 (임이) 오시는 소리가 전혀 없네.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 소리조차 (임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는 것을) 낸들 어찌하겠는가.
- ④ ‘원천석’의 시조로 ‘고려의 멸망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 있다. <현대어 풀이> 흥하고 망함이 하늘에 달렸으니 만월대도 가을 풀만 우거져 있다. / 오백 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더 알아두기]

김영랑, 「독을 차고」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1939)에 발표된 것으로, 김영랑의 역사의식이 드러난 작품이다. 김영랑은 초기 시에서 순수한 서정을 잘 다듬어진 언어로 노래하였다. 그런데 이 작품에 나타난 그의 새로운 변모는 그의 시 속에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 받아들여진 자취가 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독’이란 그의 마음 속에서 결정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 또는 죽음의 각오와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454쪽 성삼문,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1. 갈래: 평시조
2. 성격: 절의가, 지사적, 풍자적
3. 주제: (단종에 대한) 굳은 절의와 지조
4. 표현: 고사를 통념과 다르게 활용하고 중의법을 사용함.
5. 출전: 《청구영언(靑丘永言)》, 《해동가요(海東歌謠)》, 《가곡원류(歌曲源流)》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457쪽 한호,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1. 갈래: 평시조
2. 성격: 한정가, 풍류적, 전원적
3. 주제: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
4. 표현: 대조법, 대구법
5. 출전: 《청구영언(靑丘永言)》, 《해동가요(海東歌謠)》, 《가곡원류(歌曲源流)》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450쪽 황진이, 「내 언제 무신(無信)호야」

1. 갈래: 평시조
2. 성격: 연정가, 애상적, 감상적
3.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4. 출전: 《청구영언(靑丘永言)》

➤ [정채영 국어] 3권 독해 444쪽 원천석,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문 18.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훌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핏귀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
나는 독을 차고 선전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1. 갈래: 평시조
2. 성격: 회고적, 감상적
3. 주제: 고려 왕조의 회고,
4. 표현
- ① 은유법, 영탄법, 중의법의 사용으로 주제를 형상화함.
- ② 고려 멸망을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로 나타냄.
5. 출전: 《청구영언(靑丘永言)》

문 19. ㉠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 자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 상식이 다. 그러나 음성 상징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 연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① ㉠ 公理
- ② ㉡ 自意的
- ③ ㉢ 常識
- ④ ㉣ 緣關性

[정답] ③

[정답 풀이]

㉠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인 '상식'은 '常識(항상 상, 알 식)'으로 바르게 표기되었다.

[오답 풀이]

- ① 公理(공변될 공, 다스릴 리):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
• 公理(함께 공, 다스릴 리)
- ② 恣意的(방자할 자, 뜻 의, 과녁 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 自意(스스로 자, 뜻 의): 자기생각이나 의견
- ④ 聯關性(잇닿을 연, 빗장 관, 성품 성):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 • 緣關性(인연 연, 빗장 관, 성품 성)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를 미래학자의 참여 의의로 본 것은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두 번째 문단에서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문단에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임을 알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 정보 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